

국물만 꼭 짜도 음식물쓰레기 반으로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로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

구분	음식물쓰레기로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 → 일반쓰레기로 배출
채소류	쪽파·대파·미나리 등의 뿌리, 고추씨, 고춧대, 옥수수대, 양파, 마늘·생강·옥수수 껍질
과일류	호두·밤·땅콩·도토리·코코넛·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질·복숭아·살구·감 등 핵과류의 씨
곡류	왕겨
육류	소·돼지·닭 등의 털 및 뼈다귀
어패류	조개·소라·전복·멍게·굴 등 패류 껍데기 게·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생선뼈, 복어내장
알껍질	달걀·오리알·메추리알·타조알 등 껍데기
찌꺼기	각종 차류(녹차 등)의 티백과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기타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스푼, 플라스틱, 고무장갑, 식물기, 손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비닐(음식물전용봉투 외 검은 봉투 등)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하여야 할 것(주의사항)

통무, 통배추, 수박껍데기 등은 잘게 썰어서 배출하고, 배추 및 아채 등을 다듬고 남은 것과 풀껍질, 바나나껍질 등도 음식물쓰레기로 배출

홍보물(뒤)

“적게 버릴수록
경제적 부담이
줄어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바로알기

QA

Q.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뭔가요?



A.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즉 음식물쓰레기를 적게 버리면 수수료를 적게 납부하고, 많은 양을 버리면 많은 수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Q.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와는 다른 건가요?



A. 네, 다릅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는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일반쓰레기와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이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버리는 양 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Q.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는 건가요?



A.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배출량이 적은 가정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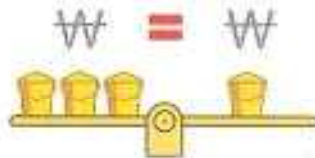
음식물쓰레기 무상·정액제는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배출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교육, 복지 등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세금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들어갑니다.

Q. 많이 버려도 똑같다면 줄일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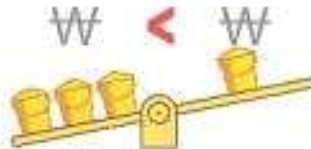
(기존 정액제 방식)

6인 가정과 2인 가정의 수수료가 동일?



(종량제 방식)

적게 버리면 적게 납부?



경제적 수수료 부담제인 종량제 시행으로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면, 소중한 세금이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서울시민 89%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동참을
표시했습니다

#

음식물쓰레기를 20% 줄이면 전국적으로 연간 1,600억 원의 쓰레기 처리비용이 줄고 에너지 절약 등으로 약 5조 원의 경제적 이익이 생깁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환경오염

- 에너지 낭비 · 온실가스 배출 · 수거 및 처리 시 악취 발생
- 고농도, 폐수로 수질오염

경제적 오염

- 식량자원 가치(연간 20조원 2010년 기준) · 처리 비용 8천억 원

사회적 문제

- 식량 · 곡물 자급률이 낮아져
농 · 축 산물 수입 증가(식량 자급률 60%, 곡물 자급률 27%)
- 한식 세계화에 걸림돌
(불필요하게 많은 반찬은 낭비적인 음식문화로 인식)

“음식물쓰레기,
하루 3천 311톤,
전국적으로
1만 4천 톤”
음식물의 1/7이
쓰레기로 버려집니다!